

강좌명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연극세계 II				
강사명	이승진	이메일	seungji@wku.ac.kr		
강좌 유형	입문 강의	정원		강의실	
강좌 난이도	대학교 교양 수준				
강의 기간	2023년도 겨울학기 : 12월 18일 개강 ~ 2024년 2월 2 ⁰² 일 종강				
강의 시간	금요일 2교시(16:30-18:20)	총 7회			
강좌 소개	연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라는 작가는 잘 모르더라도, 서사극이라는 단어나 『서푼짜리 오페라』, 『억척 어머니와 그 자식들』, 『사천의 선인들』 등의 작품 제목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19세기 말에 태어난 브레히트는 자본주의, 대도시, 제1차 세계대전, 매체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사회변혁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연극으로는 현실을 무대 위에 옮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학습극, 서사극, 라디오 방송극 등의 다양한 연극실험을 시도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바알』에서 시작해 총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총 48편의 (완성)희곡을 남겼다. 관객의 수동적 감상태도를 비판하고, 관객을 능동적인 참여자로 활성화시키려 의도했던 그의 서사극은 이제 독일 무대뿐 아니라, 한국의 동승동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연극을 변화시켰으며, 그의 연극이론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되어 현대 연극의 이론과 공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브레히트는 총 48편의 완성희곡과 방대한 서사극 이론, 100편에 가까운 미완성 희곡을 남겼다. 본 강좌는 이 중 한국어로 번역된 희곡과 연극이론들을 중심으로 브레히트의 방대한 연극세계를 3-4학기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학기는 그 두 번째 학기로서 브레히트의 대표작 『서푼짜리 오페라』를 비롯해 1920년대말에서 30년대 초에 걸쳐 수행되었던 실험적 연극인 학습극 『조처』, 라디오 방송극 『린드버그(들)의 비행』 등 브레히트의 가장 실험적인 작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난이도 및 수강요건	본 강좌는 대학교 교양강의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나, 작품에 따라서는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상세한 작품분석도 시도될 것이다. 강의 방식은 1) 수강생들은 학기 초에 소개되는 번역텍스트를 미리 읽어보고 수업에 참여하고 2) 강사는 작품의 생성사, 주요 텍스트 대목에 대한 분석, 작품 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3) 이를 토대로 강사와 수강생들 사이에 질의와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홍보용 강좌 소개글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전통 연극과 무엇을 달리하는가? 20세기 최고의 무대콘텐츠인 『서푼짜리 오페라』는 정말 서푼짜리 밖에 안 되는 허접스런 연극일까? 본 강좌는 20세기 연극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브레히트의 연극세계를 개괄하는 두 번째 강좌로서 브레히트의 서사극이론과 『서푼짜리 오페라』, 『조처』 등 1920년대의 실험적인 작품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강사 소개	이승진(李承眞)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카를스루에 대학교에서 브레히트의 시집 『도시인을 위한 독본』에 대한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매체작가 브레히트』, 『브레히트의 서사극』(공저), 『브레히트 연극사전』(공저), 『청년 브레히트』(공저), 역서로서는 『전쟁교본(브레히트의 사진시집)』, 『제3제국의 공포와 참상』, 『브레히트, 시에 대한 글들』, 『독일 연극이론』(공역), 『브레히트의 연극이론』(공역) 등이 있으며, 「'거지 오페라'에서 '서푼짜리 영화'까지 - '서푼짜리 소재'의 변용 스토리텔링 연구」 등 40여 편의 브레히트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진행 방식	1) 작품 텍스트 중 주요 장면은 같이 낭독한다. 2) 낭독 후 강사의 강의가 진행될 것이며 3) 그 후 질의, 토론 시간을 갖는다. .
교재	브레히트 주요 희곡은 대부분 번역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브레히트 학회가 공동으로, 또는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번역 출간한 다음과 같은 번역 텍스트들이 수업시간에 사용될 것이다. 각 작품별로 사용될 번역텍스트는 강의 첫 시간에 일괄 소개될 예정이다. 1) 한국브레히트 학회(편역), 『브레히트 희곡선』 1,2,3. 연극과 인간, 2011. 2) 이상복 외(공역), 『브레히트 희곡선』, 연극과 인간, 2002 3) 그밖에 <지만지 드라마>로 발간된 번역 단행본 등
참고문헌	한국브레히트 학회 (편), 『브레히트 연극사전』, 한국외대출판부, 2011. 한국브레히트 학회(편), 『청년 브레히트』, 연극과 인간, 2019. 김기선(역), 『브레히트 연극에 대한 글들』, 지만지, 2020. 이승진, 『매체작가 브레히트』, 연극과 인간, 2018. 오제명, 『브레히트의 교육극, 배경, 이론, 작품』, 한마당, 1993. 송동준(외), 『브레히트의 서사극』, 유형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주차	날짜	강 의 내 용
1	12. 22.	1) 초기 희곡 개괄 - 1학기에 다루었던 초기 희곡들 (『바알』, 『한 밤의 복소리』, 『도시의 정글 속에서』, 『남자는 남자다』)에 대한 개괄 2) 서사극 이론 -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서푼짜리 오페라』를 통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오페라를 분석하기 전에 서사극의 연극사적 의미와 다양한 서사기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사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서사극의 핵심개념인 ‘생소화’의 의미와 그 기법
2	12. 29.	『서푼짜리 오페라』 (1928) 1928년 8월 31일 베를린 쉬프바우어담 테아터에서 초연된 『서푼짜리 오페라』는 베를린 문단에 입성한 지 4년밖에 안 된 브레히트를 일약 독일 문단의 최고 스타이자 흥행 작가로 만들어준다. 이 오페라는 1933년 1월까지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유럽에서 1만 회가 넘게 공연되면서 오페라에서 불린 노래를 취입한 음반만도 20종이 넘을 정도로 ‘바이마르공화국 최고의 문화적 사건’이 된다.
3	1. 5.	이런 외적인 성공 못지 않게 브레히트는 이 작품에서 조폭 두목 맥키스를 내세워 〈시민사회=도둑들의 사회〉라는 등식을 무대에서 보여 주려 했다. 또한 이 작품은 그 모태가 되었던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에서 『서푼짜리 오페라』 초연공연, 『시도』지 인쇄본, 『후. 서푼짜리 영화』, 『서푼짜리 소설』 등을 거치면서 작품 내용의 변화가 컸으며, 이러한 변화는 브레히트의 자본주의 학습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무대공연에서 영화, 소설로 매체를 바꿔가면서 브레히트는 이 『서푼짜리』 시리즈를 통해 매체에 적합한 변용스토리텔링을 시도한다. 이처럼 1920년대 브레히트의 작품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서푼짜리 오페라』는 작품 생성 및 서사의 변화, 서사적 장치, 부르주아 시민사회 비판, 변용(매체)스토리텔링 등 다룰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 이 오페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4	1. 12.	『마하고니의 흥망성쇠』 마하고니는 술, 담배, 여인 등 모든 것이 허용되는 쾌락의 도시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지불 할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희곡은 알래스카에서 큰 돈을 벌어 쾌락의 도시 마하고니를 방문한 3명의 벌목공이 마하고니의 법칙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대도시를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해부한다.
5	1. 19.	〈학습극 Lehrstück〉 『린드버그들의 비행』 / 『동이에 관한 바텐의 학습극』 / 『예/아니오 라고 하는 사람』 / 『조처』
6	1. 26.	학습극은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초까지 브레히트가 쓴 일련의 실험적인 극작품들을 지칭한다. 학습극은 문학의 교육기능을 극대화한 공연콘텐츠들로 관객들을 학습시켜 공연 소비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로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라디오, 사진 등 당대 첨단매체가 사용된 매체실험이기도 하다. 학습극은 아쉽게도 망명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브레히트의 방대한 희곡세계에서 가장 실험적인 공연형식으로서 학습극적인 요소는 브레히트의 전 희곡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작용한다.
7	2. 2.	『도살장의 성 요한나』

		시카고의 축산시장과 주식시장을 배경으로 구세군 여인 요한나와 축산시장의 큰손들과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시카고의 백정 조우』, 『빵집』 등 자본주의 시장을 다루다 미완성으로 끝낼 수 밖에 없었던 브레히트가 드디어 자본주의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선언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	--	--